

# 家族生活에 대한 住宅의 社會學的 및 適合要求 ④

## - 解決策들에 대한 고려

趙 英 武 (建築家)

이번에는 다음 차례로 논하고자 한다

- 4 해결책들에 대한 고려
  - 4-1 주택계획들의 분류
  - 4-2 내부왕래들
  - 4-3 현관기능
  - 4-4 휴식들-활동들; 내밀성-접촉
  - 4-5 예비공간
  - 4-6 몇가지 기능들의 충족에 관한 고찰
    - 4-6-1 식사기능의 배치. 세가지 부엌들
    - 4-6-2 부부의 취침기능
    - 4-6-3 자녀들의 취침기능. 놀이와 여가간의 연결. 자녀 居室
    - 4-6-4 세탁물건조
    - 4-6-5 저장고
  - 4-7 설비시설들
    - 4-7-1 덧문들과 채양들
    - 4-7-2 난방
  - 4-8 기타
  - 4-9 소규모공동사회의 공동설비시설들
  - 4-10 주택에 관한 외부적필요들

### 4. 해결책들에 대한 고려

해결책들은 여러가지 계획들의 유형들이 되어 버릴 것이다.

#### 4-1 계획들의 분류

1950년대에, 植物學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방법을 도입하여 온갖 주택계획들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었다. 그것이 「주택계획들에 관한 형태학 시도」였었다(A. Turin-Essai de typologie des plans de logements, -C. S. T. B 연구지, No.337-303, 1959. 4), 그 제 2단계는 각종생활양식들의 각종種들에는 체계적인 同族性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리고 또 各種마다의 最上質의 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各種種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직 이 주택계획들의 자연적분류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A. Turin이 연구하였던 「주택계획들에 관한 형태학 시도」는 일정한 수의 기호들에 의거하여 계획의 식별과 재구성을 가능케 하는 측정카드를 내놓을 수 있게 만들었었다. 1950년대부터 프랑스 C. S. T. B가 추진시켰던 한 연구는 A. Turin에 의하여 채택되었던 분류기준들과 여러가지 다른 생활양식들에 대한 계획들의 適合간의 일치점들을 입증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까지 하였었다.

여기에 또 Lebegge와 Defay의 연구를 인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Lebegge et Defay-Utilisation de l'espace de logement. -Habiter 지 No.2, 1957). Lebegge와 Defay는 「주택공간의 이용」이란 연구논문속에서 다음과 같은 지수들에 의하여 주택계획들의 특성을 표시하기를 제안하였었다.

거주면적  
유효면적

야간거주면적  
실효면적

주간거주면적  
실효면적

## 계단출입면적 실 효 면 적

## 설비시설면적 실 효 면 적

사실, 누구나 이와 비슷한 다른 지수들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수들은 어떤 잇점을 주고 있지만, 다른 기준들을 참작하지 않고서는 한 계획의 가치와 특히 관계된 생활양식들과의 적합의 가치를 판정할 수 있게 못할 것이다.

이런 고려들은 대단히 위험스럽기 조차 한 것이다. 왜냐하면 온갖 면적들이 동일가치를 가진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물의 핵적왕래는 비용이 덜 들 것이고, 또 건물폭이 8m 이고 현관이 없는 것보다도 12m 건물폭의 공동주택에서는 더 많은 왕래면적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1960년전후까지도, 주택계획들의 분류와 최적결정이 성공되지 않았었다.

1960년대에는,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주택을 설계하기 위하여 「성장하는 주택」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었다. 성장하는 주택에서는 한가지 생활양식보다 더 여러가지 생활양식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왜냐 하면 이런 수단은 1970년전후까지도 음향적요구들과 안정성을 잘 충족시킬 수 없었던 이동칸막이 들이라든가, 칸막이를 하지 않은 공간들이라든가 하는 것을 처리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0년전후까지도 이에대한 조사들은 그런데 사는 가족들이 이런 수단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연성」에 대한 관심은 한 가족의 필요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더러 생활양식들의 전반적인 변천을 예비하기 위하여 건물내구수명기간중에 방들의 분배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망을 나타내고 있다. 생활양식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속도로, 어떤 확실한 방향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취할 수 있는 경계심들은 대단히 애매하고 불확실한 성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4 - 2 내부왕래들

1950년대에는, 전체면적과 방들의 면적의 비율에 대한 고려 따위의 고려들에 압도당하여, 왕래복도를 희생시키고 또 소홀히 다루었었다. 현실적으로, 어찌 되었든간에 왕래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왕래면적들이 방들의 면적들 안에 섞여서 존재하였고 또 그 면적절약의 잇점이 거실안의 정숙이 줄어드는 불편스러움과 상쇄되어 존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왕래의교차점처럼 사용되는 선취득권

을 가진 것이 바로 거실이었다. 점용자들은 이런 해결책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 종속적인 왕래가 예를 들면 부엌을 통하여 침실들로 갈 수 있게 한다면, 점용자들은 이런 해결책을 더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스러움이 아파트의 주요왕래동선과 떨어져 있는 거실에 대한 요망을 표시하고 있는지를 특히 잘 가려 보아야 한다. 오늘날, 방들의 외부에서 왕래하여야 한다는 필요는 모두가 찬동하는 잘 알려진 새로운 해결책이다.

### 4 - 3 현관기능

현관기능은 내부왕래들과 대단히 비슷한 문제점이다. 가족들은 현관문이 직접 거실로 통하는 수단들을 없애야 한다는데 의견들이 기울고 있다. 현관기능은 아무런 다른 가족생활기능이 행하여지지 않는 특별실속에서, 그야말로 내밀한 閤室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 4 - 4 휴식-활동; 내밀-접촉

1960년대 만해도, 누구나 한 집안에서 주간부분과 야간부분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하면서 대발견을 한 것처럼 확신하였었다. 그리고 역시 오늘날에도 누구나 이렇게 주야부분의 구별이 강조되어 있는 계획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사실상 그 점에 대하여서는 오해가 문제될 것 같다. 주택면적의 반 또는 대부분을 접하는 공간을 단지 취침에만 충당하여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공간이용이 아닐 수 없다. 침실들을 자녀 또는 어른의 작업실, 부부의 여가장소 따위가 될 수 있는 침실들로 만드는 것이 아주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음향문제들을 조심하기만 하면 된다.

참다운 내밀, 이것은 내밀-접촉인 것이며 또 다시 이것은 역시

- 내밀성,
- 가족일부그룹들,
- 가족전원 따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가져야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은 몇가지 공용실들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는 놀이방, 또는 자녀거실이라고 불리우는 자녀들을 위한 방을 보여 주는 계획들이 만들어졌고 또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어 계획들을 만들어 냈었다.

여하간 자녀거실이 복도를 넓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 4 - 5 예비공간

어떤 독립주택들에 대한 조사가 덜 전용화된 공간들이 가족생활에 있어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입증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덜 전용화된 공간들은 장차 마음대로 엄격히 분배되어 있는 공동주택들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여유있는 공간들은 가족생활에 관하여 달리 해결할 길이 없었던 꿈들을 마련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특별한 성격없이 부차적인 거실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들에서 사는 가족들에 대한 관찰은 이런 예비공간들이 가족들을 위하여 중요한 균형과 안정의 요인들이라는 가정을 추측하였었다.

꿈꾸어 볼 수 있고 또 기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요긴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임대주택은 아직 대개 단독주택을 만든다는 한가지 꿈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옴방도 없고, 차고도 없고, 지붕다락방도 없고, 지하실도 없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단독주택은 그 취득자의 열망을 불완전한 정도밖에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 4 - 6 몇가지 기능들의 충족에 관한 고찰들

##### 4 - 6 - 1 식사기능의 배치, 세가지 부엌들

부엌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욕망은 50%이상의 가족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욕망은 특히 주부들에 의하여 표시되었다. 부엌안에서의 식사가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분위기들속에서, 가사종사원들의 부족, 취업주부를 위한 식사시간의 감축, 항상 깨끗이 정돈된 상태속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갈망 따위가 주부로 하여금 옛날부터의 오랜 禁忌를 버리겠끔 강요하였었다. 그와 반대로 가정일들에 관한 부담을 덜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이런 갈망에 대하여 많은 망서림을 나타내고 있다. 어찌 되었든간에, 요리기능과 경우에 따라 세탁 및 세탁물건조 기능들을 위하여 (이른바 부엌-가사실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부엌들밖에 안만든다는 것은 어쩐지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확정적인 고객에 대한 사회학적조사들이 결정지을 수 있게 하는 비율에 따라서, 부엌에 관한 세가지 유형들의 아파아트들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가) 인구의 약간 반수 이하의 갈망에 대응하는 요리하는 부엌(요리기능,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과 그 건조) 을 가진 아파아트;

나) 식사하는 부엌(먼저 것들과 같은 기능들과 일상적인 식사기능, 잔치식사들은 다른 방에서 행한다)을 가진 아파아트. 성인들의 여가와 고정직업과 다른 작업기능들을 감당하는 것, 고유한 거주는 다른 방에서 행하여진다. 이런 아파아트는 인구의 약간 반수 이상의 갈망들과 대응하고 있다;

다) 거주하는 부엌(기능들: 요리, 식사, 성인들의 여가와 고정직업과 다른작업)을 가진 아파아트. 이 해결책은 과거 수백년간 존속한 유럽의 구식싸롱에의 복귀인 동시에 어떤 근대적아파아트에 합체되어 있는 부엌을 가진 거실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형식은 별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프랑스에서도 가족들의 약 2%정도가 될까 말까 하

다). 그릇들을 씻어야 하고 또 오래 물을 끓여야 하는 장소인 부엌뒷칸(레인지)을 가진 아파아트를 실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계획작가들의 주의를 다시 끌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어느 경우들에서이든, 식사를 부엌에서 먹을 수 없다면, 부엌과 식당이 붙어 있는 것과 근접한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부엌문제는 특히 독일에서 연구되었었다. 독일에서는, 농촌의 living-kitchen(Wohnküche)사용이 아직 대단히 뿌리깊다; 어떤 이는 이것이 퇴보된 것인양이 부엌형식을 활발히 논하고 있다. dining-kitchen(Essküche)이 면적부족때문에 다시 한번 곤난이 가중되고 있는 living-kitchen의 생활양식을 허용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누구나 요리, 식사, 그리고 거주를 위한 세가지 공간들이 계획배치들속에 지시되어 있고 또 출입문들과 칸막이들이 부엌에든지, 거실에든지 식사코너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해결책들을 칭찬하고 있다.

##### 4 - 6 - 2 부부의 취침기능

부부취침에 대하여 바람직한 면적은 대단히 일정하다. 무엇보다도, 이 부부침실은 양식의 경우 중앙에 침대를 놓는 침실의 전통적가구 때문에 그면적(최소한 12m<sup>2</sup>)이나 그 형상(정방형이 바람직하다)이 조건지워져 있다. 대부분의 가족들에 있어서 부부의 취침은 전통적인 가구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부부가 취침하는 침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활동들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로 특징지워진, 너무나 관계적인 성격을 보존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거실이 넓게연결할 수 있는 두개의 방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수많은 아파아트들에 있어서, 거실에 가족 일부를 취침케 할 필요가 있을 때, 아주 드물게 거실에서 취침하는 사람들이 부부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여튼 가장 늦게 까지 깨어있고 마즈막까지 거실을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거의 언제나 그들자신의 방안에서 취침하며 또 아주 불편하긴 해도 거실안에 자녀또는 늙은양친을 침침케 하고 있다.

##### 4 - 6 - 3 자녀들의 취침기능. 놀이와 여가 간의 연결. 자녀居室

모든 사회계층들이 동성의 두 자녀에게 10m<sup>2</sup>의 침실 밖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 누구나 그 이상으로 하나의 침실을 증설하든가, 그 면적을 증가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이 자녀들이 부엌 또는 거실에서 놀고 또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가족유형들은 보다 더 넓은 자녀 침실들에 대한 갈망을 표시하고 있다. 그럴 때 자녀침실은 자녀들의 취침, 자녀들의 놀이들, 그리고 학교공부 따위 세가지 기능들을 감당하여야 한다.

사회주택들의 최대면적들과 최고가격들의 제한이 자녀 침실들의 면적의 증가문제에는 별로 적당하지 않다.

다른 면으로, 두개 또는 특히 세계의 자녀침실들이 있을 때는, 놀이들과 경우에 따라 공부를 위한 공용공간, 자녀거실을 창설하는 것이 각 자녀침실안에 공부와 놀이들을 위한 면적을 추가하는 것보다도 땀가가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간에는 대단히 작은 면적의 축실(alcôve)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이동칸막이들 또 커튼들을 가지고 또 야간 취침중에는 전용적용 공유하는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자녀거실형식은 또한 전체 자녀들에 대한 보살핌을 쉽게 한다. 결국 많은 식구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들(연령이 비슷한 3~4인이상의 자녀들)은 이런 해결책에 적합할 것이다. 어떤 주부들은 간혹 그들의 세탁실을 자녀들의 방으로 개조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체험하였었다. 누구나 자녀의 수가 4인이 되면 면서부터 필요한 방, 놀이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계가족단체협회(UIOF)가 이 때문에 추천한 면적과 일치하는 8m<sup>2</sup>/1인의 면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건축가들에 의하여 연구될만한 가치가 있는 형식이다. 이런 형식이 많은 계획의 실례들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자녀들이 놀고 또 공부하는 침실들 또는 방들은 집안에 있는 어른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대개 가정주부가 될 것이다. 생활양식에 따라 가정주부는 우선적으로 부업 또는 거실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예상과는 다른 배치가 될 것이다. 부업 또는 거실과 자녀침실의 근접은 주간에는 바람직하나, 야간에는 방해가 된다.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그 어려움은 예를 들면 문장을 짜넣은 이중문설치에 의하여 또 부부의 거주장소(부엌 또는 식당)와 자녀들의 침실 사이에는 자녀거실을 중간에 완충배치시키는 것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아직 해결을 못 본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 4-6-4 세탁물건조

세탁물건조는 미묘한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세탁기개발은 집안에서 세탁할 물건들의 양과 세탁할 것들을 건조할 공간적치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게 환기가 되지 않는 방안에서 세탁물을 건조시키려면, 전체적으로 협소한 주택은 피해를 입을 위험이 확실해진다. 이와 같은 협소가 드디어 특수 건조장소를 설계하게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방법들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가) (인공적으로) 좋은 환기를 요구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예 욕실)과 같이 사용되는 방안에서의 자연적 건조;

나) 온기장치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환기하는 작은건조용적(예 벽장방식)에서의 인공적건조.

대개 공동세탁건조장 형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다.

#### 4-6-5 저장고

저장고에 대한 필요는 각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정리용적의 요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저장고는 그런 것과 달

리 계절적인 또는 예외적인 사용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저장고의 필요가 수가 많은 가족들에게(유모차, 놀이도구, 기저귀 따위)또 자주 이사하는 가족들에게(공무원들, 장교들, 트렁크, 고리작 따위)매우 커진다. 사회주택에서의 요구들은 매우 불충분하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저장고는 한마디로 이런 구실을 해낼 수 있는 건조하고, 근접하기 쉽고, 채광 또는 조명된 장소이어야 한다.

### 4-7 설비시설들

#### 4-7-1 덧문들-채양들

개구부들의 엄폐장치들은 대부분의 점용자들에 의하여 조명에 대한 보호장치(여름철의 낮잠 또는 주간에 쉬는 야간노동자들의 낮잠)와 일광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요구되고 있다. 이 엄폐장치들은 가족의 내밀성까지도 보장하게 된다.

#### 4-7-2 난 방

1960년 이전만해도 중앙난방은 첫째로 비용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현실적으로는, 같은 난방일 경우 개별난방이 더 비용이 많이든다) 또 둘째로 내외가 모두 다 직장으로 일하려 나갈 때 불필요한 주간난방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었다. 이런 어려움들은 중앙난방의 보급에 따라서 빨리 없어져 버렸다. 무엇보다도 임대아파트와 아파트관리사의 경우 년중 난방비를 포함하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청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 4-8 기타

사소하지만 점용자들에게는 중대하고 빈번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가) 어떤 창문들의 형식은 가정주부로서는 신체적위험들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유리 청소를 할 수 없거나, 전체적으로 추한 꼴들을 청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계단들, 승강기들 또는 Lift 따위가 가구 또는 환자의 정상적인 운반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4-9 소규모의 공동사회의 공동시설들

우리는 몇가지 기능들의 수행을 공동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었다. 이 공유화는 면적들과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필요해진다. 이런 공유화는 몇가지 기능들이 더 효과적으로 충족된다는가 또는 개인적으로 탁아소와 어린이놀이터 따위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가끔 유익해진다.

공동시설들가운데서도, 다음 것들을 인용할 수 있다:

가) 세탁, 세탁물건조, 다림질, ...따위 가사기능 들에 쓰이는 것들;

나) 탁아소, 놀이터들...따위 어린이들에게 쓰이는 것들. 놀이터는 어린이의 모래터에서부터 어른들의 운동장

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의한 인구수 또는 성별로 구별된 높이터들;

다) 일시적으로 노부모 또는 친구를 영접하기 위하여 가족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침실들...따위 가족생활에 쓰이는 것들, 개인적인 잔치를 위한 연회실, 주민들의 회합실;

라) 직업활동의 작업들과 같은 여러가지 활동에 쓰이는 것들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그들의 주택의 모든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폭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어린이놀이터들과 녹지들을 제외하고는, 그 가족들은 불충분한 필요들의 공동해결에는 가끔 눈길을 돌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설할 어떤 공동시설들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전조사가 필요해진다.

#### 4 - 10 주택에 관한 외부적필요들

주택조사들은 주택 외계에 관한 외부적필요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었다. 이것들은 가족적요구들일 수가 없다.왜

냐 하면 가정 밖에서 어디서나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도시인은 대개 그 자신의 집안의 내밀성이란 필요와 변화하고 군중들이 들끓는 분위기에 섞여 사는 필요를 하나하나 차례로 증언하기가 일쑤이다. 그러므로 그의 집안에서 개인적인 내밀과 정숙을 누리게 되지만, 그의 집밖의 근처에서는 한마디로 광장과 같은 변화한 중심지구, 산책로가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

도시계획가들과 복합건물설계자들이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광장(forums)와 소광장(plazzet-taz)보다는 대광장들을 만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 주거지구의 부중심지구에 또는 재정비한 도시중심지구에 생활과 경기를 부여한다는 것이야말로 도시계획가의 예술인 것이다. 이런 생활중심지구를 사회적중심이라고 부르면서, 간혹 사회적건물들을 건설하나 거기에 광장이 없는 잘못을 저질르고 있다. 광장은 변화한 점포들, 다방들, 시청자, 학교들, 도서관들, 우편국, 극장...따위 공공건물과 더불어 만들어져야 한다.

(끝)

## 에너지節約運動展開

### 1. 節電의 必要性

水力發展을 爲한 水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主로 火力發展에 依存하고 있으며 火力發展의 燃料는 油類를 使用하고 있는바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는 해마다 莫大한 外貨를 들여 輸入하고 있어 節電의 必要性이 絶실히 要求되고 있음.

76年度 發電燃料 消費量

燃料의 種類	消費量	換算量
방카 C 油	2千4百萬드럼	드럼을이면 서울~釜山間30回 往復距離
디젤 油	23萬드럼	드럼을이면 서울~大邱間 距離
無煙炭	3億2千7百萬個	

#### ○ 初저녁 電力使用의 抑制

밤 6 시 - 9 時 사이에 集中的으로 電氣를 使用함으로써 平均電力과 最大電力의 差는 約90萬KW에 達하여 이90萬KW級 發電所 3 個를 建設해야되며 이에 所要되는 建設費는 約1千8百億원 (KW費20萬원)으로 推定되고 있어 電氣料金中에는 發電所 建設費가 包含되고 있어 初저녁에 電氣를 덜쓰면 發電所建設의 必要性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電氣料金 引上要因이 줄어드는 것임.

### 節電要領

#### ○ 事務室 節電

- (1) 標準照度以上 電氣除去
- (2) 夜間消燈嚴守
- (3) 電熱器使用禁止
- (4) 夜間作業室統合
- (5) 每 6 燈마다 電燈點滅裝置
- (6) 照明燈의 清掃를 자주하여 充分한 照度를 維持하도록 한다.
- (7) 光源과 冊床間의 距離를 2m以內로 調節하여 不必要한 電力浪費防止

#### ○ 一般家庭節電

- (1) 한집에서 60W 한燈을 끄면 1년에 約 5,400원을 節約할 수 있으며 全國적으로 約200億원이 節約됨
- (2) 結果적으로 766,500드럼의 油類가 節約되고 24萬kw 施設用量的 發電所 建設費 4百80億원을 節約할 수 있다.